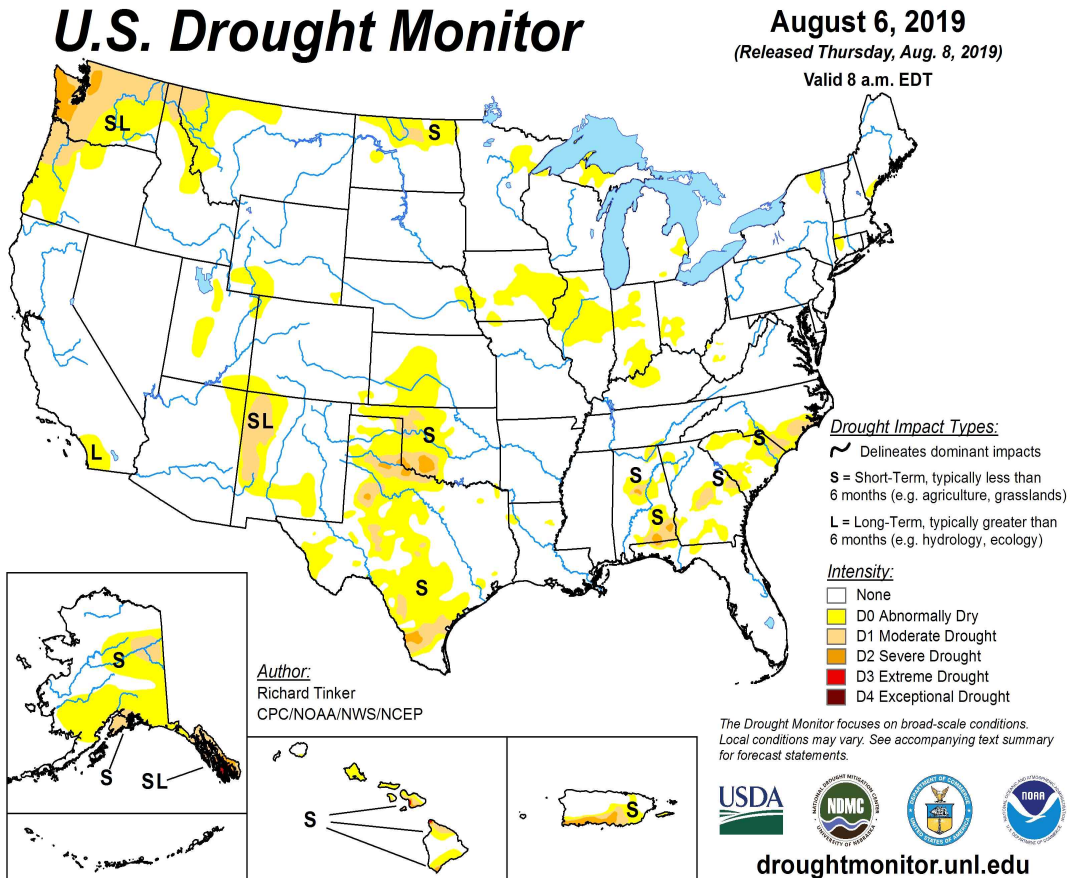


8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72)

□ 미국 기후 현황(8/4~8/10)

오대호, 대서양 연안 주들, 평원 북부와 중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테네시 계곡까지 뻗는 지역 등 몇 지역에 한정해서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한편 옥수수 벨트 남부와 미국 남중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뒤덮고 있어서 표토의 수분을 더욱 줄이고 있었다. 남중부에서는 극심한 무더위와 단기 건조가 방목지, 목초지, 미성숙 여름 작물들에 미치는 영향을 더 악화시켰다. 사실, 평년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미국의 다른 지역들을 뒤덮었는데 여기에는 로키 산맥의 중부와 남부 구역들, 고원, 북서부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북서부 일부, 사막 남서부, 고원 남쪽은 평년 대비 주간 평균 기온이 최소 5° F 이상 높았다. 하지만 중서부 전역은 3주 연속 온도가 압도적으로 평년 근처 또는 평년 이하여서 옥수수와 콩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그밖에 서부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야외 작업을 다소 지체시키기는 했지만 단기 건조를 겪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해소해주었다. 가장 심했던 소나기들 중에서 일부는 대체로 남서부의 계절풍 순환과 연관이 있었는데, 애리조나 남동부에서부터 로키 산맥 중부와 남부까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8/5~8/11)

비는 대평원, 메인, 대서양 남부 지역 일부에서 가장 심하게 내렸고 일부 지역은 4인치 이상 내렸다. 아이다호, 뉴멕시코, 태평양 북서부, 텍사스 일부에서는 온도가 평년 대비 최소 6° F 이상 높았다. 반면 중서부와 북동부 일부에서는 온도가 평년보다 약간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8/4~8/10)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에 추가로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리면서 초기의 겨울 작물 파종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유지 또는 개선하였다. 한 주간 빠르게 움직이는 일련의 요란으로 중간-강한 소나기가 발생하여 중부와 북부 유럽의 많은 곳에 총 강수량 5-75 mm의 비를 뿌렸다. 이 수분이 프랑스에서부터 폴란드 남서부까지 가뭄을 완화시켰고 겨울 유채 파종과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 공급을 개선했다. 유채는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심는 겨울 작물이다. 이와 반대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늦게 발달하고 있는 여름 작물들에 대한 관수 수요는 계속 높다. 그러나 북스페인 (카스티야이레온)의 옥수수 와 해바라기는 지난 30일간 적시에 내린 비 (평년의 100-200 퍼센트)로 혜택을 보았다. 먼 동쪽은, 중앙 이탈리아에서부터 발칸 지역에까지 화창한 하늘이 여름 작물의 성숙을 촉진했다. 이곳의 옥수수, 콩, 해바라기의 수확량 전망은 6월과 7월 중에 시기적절하게 내린 비 덕분에 계속 양호했다. 대륙에 평년보다 더운 (평년보다 최대 4° C 높음) 날씨가 돌아와서 프랑스 중부와 서부에서는 중간-높은 섭씨 30도 대에 달하는 낮 최고 온도로 늦게 발달하는 옥수수와 콩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 구소련(서부): 시원하면서 대체로 축축한 날씨는 지역 전체에서 생식 또는 종실 비대 중인 여름 작물에게 유리하였다. 흑해 지역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러시아의 많은 곳까지 중간-강한 비 (10-125 mm)가 보고되었다. 이 수분이 종실 비대 중이거나 (남부), 생식 중인 (북부) 옥수수, 해바라기, 콩에게는 유리했으나 계절 야외 작업은 지연시켰다. 위 지역들 중에서 많은 곳의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2-4° C 낮아서 어떤 잠재적인 늦철 폭염 위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역 전체가 여름 작물 수확량 전망이 계속해서 좋거나 우수하였다. 다만, 향후 몇 주간은 성숙, 건조, 수확을 위해서 좀 더 건조한 날씨가 바람직할 것이다.

■ 동아시아: 태풍 레키마가 주말에 중국 남동부로 이동하여 동부 해안을 따라 있는 성들에게 강한 소나기를 뿌렸다. 폭풍의 경로를 따라 내린 비의 총강수량은 100 mm 이상이었는데 어떤 곳은 400 mm를 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가장 많이 내린 곳들에서는 홍수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작물 재배지들은 수분 공급량 상승으로 혜택을 받았다. 사실 이 비는 양쯔강에서부터 황하까지에 있는 동부 성들의 계절 수분 부족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해주었다. 한편, 북동부에는 소나기 (25-100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가 옥수수, 콩, 벼에게 적당한-풍부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었고 흑룡강에 내린 계절 강우 (6월 1일 이후) 총량은 거의 기록적이었다. 그밖에 양쯔 계곡의 서쪽 지역과 남서부는 벼와 기타 여름 작물들을 위해서는 좋은 수분 조건을 유지했지만 남부의 많은 곳은 폭염과 건조가 계속되어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다른 곳들에서는 약화된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일본에서 사태를 일으켰고, 한반도의 남해 섬들과 동부에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를 뿌렸다 (50-100 mm 또는 그 이상).

■ 호주: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는 좋지 못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가뭄 피해를 입은 밭을 구하려면 필사적으로 비가 필요하다. 밭이 빠르게 생식 단계에 접근하고



있고 여름 작물 파종에 앞서서 저수지에 다시 물을 채우고 토양 수분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는 50 mm 가까이)가 최근 계속된 건조로 피해를 입었던 겨울 작물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비슷하게 빅토리아와 남호주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10-40 mm, 지역적으로 더 많 이)는 영양생장 중인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대체로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밖에 밀 벨트에서는 서호주에 산발적인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밀, 보리, 캐놀라에게 유익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작물 전망 을 유지하려면 비가 더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부와 남동부는 평균 온도가 평년 수준 이었고 북동부는 평년보다 1° 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계속되는 건조가 나라의 많은 곳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가을 작업에 도움 이 되었다. 라팍과와 남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살타와 주변을 지나기까 지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 엔트레리오스와 코리엔테스에는 가벼운-중간 정도의 소나기 (10 mm 이상)가 제한적으로 내렸고 동쪽으로 우루과이까지는 좀더 많은 비 (25-50 mm 또 는 그 이상)가 내렸다. 남부 농업 지대에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 또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지만 먼 북쪽은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았고 산티아고델에스테로와 차코에서는 여 러 차례 밤 최저 기온이 0° C 이하로 떨어졌다. 낮 최고 온도는 추운날씨를 보이는 기간들 사이에서 낮 최고 온도가 섭씨 30도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8일 현재 목화가 96% 수확되었고 코르도바와 산티아고에 약간의 야외 작업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옥수수는 93% 수확되어 작년 대비 3 퍼센트 뒤쳐져 있었다. 한편 밀 파종은 거의 100% 완료 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농업 지대 전체에서 날씨가 계절적으로 건조하여 후반기 옥수수와 목화의 수확 작업을 원활하게 해주었고 여름의 폭염 (낮 최고 온도가 중간-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함)이 건조 과정을 돕고 있었다. 마토그로소에서는 8월 9일 현재, 옥수 수 수확이 거의 100% 끝나고 있었고 목화는 47% 수확되어 평년 대비 5% 뒤쳐져 있었다. 먼 남쪽의 리오그란데도술과 상파울로 북부 인근에 강우 포켓 (10-50 mm)이 기록되었다. 리 오그란데도술에 내린 비는 대체로 영양생장 단계에 있었던 밀에게 지역적으로 과다한 수준 의 수분을 유지시켰고 더 북쪽은 비 때문에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을 일시 중단되었다. 한 편 파라나에서는 좀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는데 정부 보고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가 8 월 5일 현재, 81% 수확되었고 밀은 70% 이상 개화기에 도달하였으며 4%가 성숙했다. 그 밖 으로 북동부 해안을 따라 내린 계절 소나기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사탕수수, 커피, 코 코아를 위한 수분을 상승시켰다.